

정읍시, 미생물 산업 생산 체계 구축

소재 개발부터 생산까지 전 주기
첨단 기술 도입 전 과정 자동화
미생물 대량 생산, 해외 경쟁력
연내 시운전 마치고 가동 목표

정읍시가 미생물 소재 산업 전 주기 생산체계 완성을 통해 첨단기술 기반 그린바이오 산업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정읍시는 미생물 소재 개발과 생산에 인공지능, 로봇 등 첨단기술을 도입해 설계부터 제품화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자동화하고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를 통해 미생물 산업 상용화 가능성을 높이고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지난해 국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그린바이오 소재 첨단분석시스템 구축사업’은 올해 2년 차를 맞고 있다. 총 사업비 99억원(국비 49억5000만원, 지방비 49억5000만원)이 투입되며 농식품 분야에 특화된 공공 바이오파운드리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은 미생물 소재 제품 생산 시 필요한 설계, 제작, 시험, 학습 등 전 과정을 자동·고속·표준화



정읍시 소재 (재)농특산물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 전경.

〈정읍시 제공〉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과정에서 도입되는 첨단 장비는 맞춤형 미생물 개발 및 대량 생산을 가능케 해 국내는 물론 국제 시장에서도 정읍산 미생물 제품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시는 지난달부터 관련 장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시스템 통합 제어 장비를 추가로 설치한 뒤 연내 시운전을 마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그린바이오 첨단분석시스템과 GMP 생산동, 연말 완공 예정인 농축산용 미생물산업 공유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며 정읍은 미생물 산업의 전주기 밸류체인을 갖춘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정읍시가 미생물 산업의 전국 중심지로서 관련 기업 유치와 산업화 속도를 더욱 높여겠다”고 덧붙였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s@

정읍시, 고부관아 복원·초중 통합학교 세운다

전북교육청과 업무협약 체결
동학혁명 정신 고취·교육 환경 개선

정읍시와 전북교육청이 동학농민혁명의 도화선이 된 고부관아 복원 및 초·중 통합학교 설립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정읍시와 전북교육청은 지난 18일 고부면 동학울립센터에서 ‘고부초·중 통합운영학교 설립 및 고부관아 복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이번 협약은 고부관아의 역사성을 회복하는 동시에 지역 교육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으로 평가된다.

고부관아는 1894년 동학농민혁명의 서막이 열린 역사적 현장이다. 하지만 현재 이 관아 터는 고부초교 부지와 겹쳐 있어 복원을 위해서는 학교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고부초를 고부중 부지로 이전하고 초·중 통합운영학교를 신설기로 합의했다. 이번 결정으로 역사 문화자원의 보존과 활용, 교육의 질적 향상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함께 이루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신설 통합운영학교는 농촌 지역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교육 혁신 모델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정읍시는 이를 계기로 지역 교육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지역 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교육 중심의 거점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이번 협약은 우리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지역의 역사자원을 복원하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이번 협약은 단순한 행정협력을 넘어 정읍의 역사와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고부관아 복원은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계승하는 일이고 초·중 통합운영학교는 우리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양 기관은 향후 공동 추진협체제를 구성하고 국·도비 등 외부 자원 확보에도 공동 대응하며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s@

‘고창 고구마말랭이’ 스벅 매장서 인기

‘한 입에 쏙 고구마’ 간편 영양식

고창군 특산물 중 하나인 고구마 말랭이가 전국 스타벅스 매장을 통해 인기를 끌고 있다.

고창군은 고구마 말랭이 제품 ‘한 입에 쏙 고구마’가 전국 스타벅스 매장에서 인기리에 판매되며 전국에 고창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다고 밝혔다.

‘한 입에 쏙 고구마’는 고창군 신활력산업단지에 위치한 해들넥영농조합법인에서 고창 고구마 100%를 사용해 생산한 프리미엄 제품이다.

80g 1팩 기준 230kcal의 간편 영양식으로 별도의 첨가물 없이 고구마 본연의 맛과 영양을 그대로 살



전국 스타벅스 매장에서 판매 중인 고창 고구마 말랭이 제품 ‘한 입에 쏙 고구마’.

린 건강 간식이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한국실명예방재단, 어르신 무료 안과 검진

남원 60세 이상 안질환 조기 발견·적기 치료



지난 18일 남원시 산내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시와 한국실명예방재단의 노령층 무료 안과검진이 진행되고 있다. 〈남원시 제공〉

남원시와 한국실명예방재단이 18일 동부산악권 산내면 행정복지센터에서 60세 이상 노령층 100명을 대상으로 무료 안과검진을 실시했다.

이는 지난해 금지면 문화누리센터에 이어 2년째 이어진 사업으로 노령층의 실명 예방과 고령자 안과 질환 조기 발견 및 적기 치료를 위해 기획된 사업이다.

안과 검진은 안과 전문의를 포함한 총 9명의 한국실명예방재단 소속 직원과 보건소, 산내면 행복복지센터 직원이 함께 나섰다.

시력 측정, 굴절이상 확인, 안압 검사, 세극 등 현미경 검사, 안저 검사를 해 이상 소견 발견시 정

밀검사로 연결해 주고 있다.

검진 결과는 현장에서 일대일 상담을 진행하고 안질환 고위험군과 수술이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2차 검진 및 전문 병원으로 연계하는 한편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는 국가지원 의료비가 지 받을 수 있게 돕고 있다.

또 눈 건강관리를 위한 생활습관 교정과 안경 사용법, 안약 및 인공눈물, 항생제 사용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눈 관리 방법이 담긴 소책자와 돋보기 무상지원을 통해 고령자들이 눈을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남원시, 광한루원 일대 광장형 도로 조성

보행 안전성 개선...지역 상권 활력

남원시는 광한루원 일대의 보행 안전성을 높이고 역사·문화자원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광한서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광한루원 일원은 국가 지정 문화재로 높은 역사적 가치를 지닌 공간이다.

시는 본 공사에 앞서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해 ‘광한루원 중심 상권 활

성화 거점센터’와 같이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은 연간 수십만명이 찾는 광한루원 일원에 보행자 중심의 광장형 도로를 조성,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 광한루원에서 궁설시장과 구도심으로 이어지는 보행 동선을 개선해 지역 상권에 활력 불어넣는 내용이다. 광한서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은 지난해 전라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 중이다. 도비 10억원 등 총사업비 2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완료될 예정이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제습기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레인지후드

전기쿡탑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쿡탑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